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조직 중심적 경향이 관료 부패에 대한 용인도에 미치는 영향*

변지은 · 이수정 · 윤소연 · 김근영 · 손승영¹ · 오경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¹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묵인해주는 분위기가 어떠한 개인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일반인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한 결과, 부패에 대한 용인도 상에서의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공무원들의 부패 용인도가 일반인들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따로이 실시된 회귀분석의 결과는 공무원들의 경우 개인적인 도덕심외에 조직 중심주의적 경향이 그들의 부패 용인도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간의 좀 더 자세한 인과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공변량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정한 모델의 구조는 인구사회적 변인이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과 조직 중심주의적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들 두 변인이 부패 용인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결과적인 경로모형은 회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였는 바, 공무원들의 경우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조직 중심적 경향에 영향을 미쳐 부패에 대한 용인도를 결정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학력이나 소득이 윤리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주며 이에 따라 부패에 대한 용인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병리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정부패의 원인론적 기재를 밝히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공직을 이용한 범죄들의 유형 및 잠재적 원인을 파악코자 한 선행 연구(이수정, 변지은, 윤소연, 이훈구, 그리고 오경자, 1996)에서는 공무원 범죄의 서로 다른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함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현상은 비단 공직자, 공기업에만 해당되

는 것이 아니라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측과 제공하
는 측, 부패행위를 촉발시키는 사회적 분위기 등
사회 전반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 연구는 그 초점을 공
직자, 혹은 기업 등 어느 한편에만 국한시키지 않
고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수용도 내지는
용인도가 어떠한 양식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고
한다.

공무원 관련 부조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용인
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 부조리
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공

* 본 연구는 수자원공사의 연구비(1996년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무원 병리란 형법상의 범죄의 성립요건인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책임성의 3요소에 의하여 성립되며, 국가가 보호하는 사회생활상의 이익, 가치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김영중, 1992). 공무원 병리중 특히 대표적인 부조리는 수뢰, 횡령, 사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직무수행과정상 발생하는 범죄들이다. 김영중(1992)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란 형법과 같은 관제실정법의 규정에서 일탈한 행위가 제1차적인 내용이 되겠으나 좀더 확대 해석을 내리는 경우, 공무원 범죄를 관료부패라는 개념 속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능성을 일탈하고, 사회문화적 규범을 위반한 이익추구나 특수이익을 도모하는 행정 행태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여 공무원들의 다양한 부패행위에 대해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얼마나 특정한 유형의 부패행위를 용인 가능하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하였다. 관료 부패를 연구하기 위해 공무원 범죄의 행위양식 자체보다는 각 개인의 부패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보려한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전반에 걸쳐 팽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불감증이 공무원 관련 범죄를 부채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패에 대한 용인도 또는 수용도라는 개념은 피조사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가 얼마나 만연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표시해 주며, 동시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각 유형의 공무원 부조리를 눈감아 줄 수 있는지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에의 용인도가 높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행위에 개입될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부패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물론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겠으나 최소한 이 “부조리에 대한 용인도”라는 개념은 공무원을 포함한 각 개인의 관료부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이러한 부조리 행위에 얼마나 가담하겠느냐 또는 이런 부조리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들보다는 공무원 부패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훨씬 솔직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범죄의 원인분석은 범죄의 실체를 보는 시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크게 나누어 미시적(micro), 또는 거시적인(macro)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범죄사회학적 분석, 생물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분석, 그리고 사회구조적 요인과 통제론적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간략히 미시적 또는 거시적인 원인론적 관점을 살펴보면 첫째, 미시적 분석시각에서는 공무원의 범죄는 공무원 자신의 행태(behavior)적 요인이나 권위주의적 가치관 등의 차원에서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범죄는 공무원 개개인의 일탈행위(deviant behavior)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거시적 분석에서는 공무원 자신들의 행태보다는 제도적 차원이나 체제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제도의 미비점이나 결함 혹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범죄가 발생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김영중, 1992).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용인도 역시도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투철한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 또는 얼마나 조직 중심적인가 하는 점등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거시적 시각에서는 부패에 대한 용인도가 사회구조적인 기능론적 입장(전수일, 1996)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해서도 이외에 여러 접근이 가능하겠으나 심리학 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은 부정 부패 현상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사회의 제도

적·구조적 특징보다는 부정부패 현상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메카니즘을 밝히는 일이라 볼 수 있다. 현 연구에서도 역시 각 개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개인 내적인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용인도 역시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하나의 행동현상으로 본다면, 이러한 판단과정에 개입될 개인의 내적 특성들을 밝히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용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심리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전적으로 개인적인 요인으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또는 가치관의 혼란정도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은 상황 및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집단을 이루고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따라서 공무원 부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개인의 조직 중심적인 경향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스스로가 얼마나 조직에 의존적인가 즉 얼마나 자신의 공동체에 개입되어 있는가에 의해 부조리에 대한 용인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내가 속한 조직의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하는 식의 공동체 중심적인 사고의 경향은 스스로가 소속된 집단이 부조리적 행태에 개방적일 때 그러한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 역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에 대한 용인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각 개인이 지닌 성격이나 가치관 등의 독특한 내적 특성은 그의 태도나 행동에 일관성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공무원 부조리에 관한 용인도에도 여러 가지 개인 내적인 가치관이

나 책임의식 등이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각 개인이 공무원의 부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정도는 그들의 윤리의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윤리의식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되어질 수 있겠으나 현 연구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하위개념을 이에 포함시켰다. 도덕적 혼란(moral confusion), 규범의 부재(normlessness), 책임감의 분산(response diffusion) 등이 그것들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가치관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개인의 부조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적인 변수로는 우선 도덕감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는 대인관계나 사회 행동에서 자신의 원칙이나 원리를 얼마나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대개 이러한 원칙들은 사회적 관계의 원리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개인의 통합적인 심리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도덕적 혼란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개인은 이러한 원칙성이나 통합성의 혼란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 혼란 정도가 높을수록 도덕적 원칙성이 없으며 개인 행동이 일관성없이 혼란스러울 것이고(서봉연과 황상민, 1993)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훨씬 자포자기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도덕감의 혼란을 가속화하는 요인은 아마도 도덕적 규범을 개인의 내적 준거로 내면화하지 않음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규범의 부재’라는 개념은 뒤르켐의 ‘아노미’개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원래의 사회학적 요인보다는 심리적 요인의 효능성을 나타내 주는 개념이다(Kohn & Schooler, 1983; Neal & Groat, 1974; McClosky & Schaar, 1965; Dean, 1961). 규범의 부재 정도가 높을 경우 규범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사회의 규범을 존중한다고 믿지 않으며, 사회에서 인정되는 ‘적절한 행동’에 대한 합의를 인식하지 않으며 일탈적

인 방식(deviant way)을 취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특성을 보인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현상 역시도 사회에 엄연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 존재하고 있으나 각 개인이 규범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라도 취하려 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의 부재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부패 행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고 부패에 대한 용인도 역시 높을 것이다.

부패행동과 관련된 또 하나의 개인내적 특성으로 책임감 분산을 들 수 있다. Klass(1978)는 비도덕적 행동이 그 행동에 대한 책임감(sense of responsibility)과 그 행동에 대한 주관적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의해 매개되어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Bandura(1986)가 제시한 비도덕적 행위의 메카니즘을 살펴보면, 각 개인이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회심리학적인 인지 현상은 ①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감의 분산 ②비도덕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과소평가 ③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외부귀인 동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부정부패 행위 역시 일종의 비도덕적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Klass(1978)와 Bandura(1986)가 주장한 비도덕적 행위의 책임감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이 부정부패 행위를 용인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예측할 수 있다.

부정부패에 대한 용인도에 영향을 주는 조직 중심적 경향

‘부정부패 현상’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하나의 행동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동시에 환경과의 계속적이고도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 최종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부패에 대한 용인도 역시도 각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에 원천을 둔 태도의 산물로도 볼 수 있는 동시에 개인의 집단중심적인 경향, 즉 자신이 포함된 조직

과의 상호작용에서 만성적으로 지니는 일관적인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패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특징적 요인은 우리나라는 개인중심적인 서구 사회와는 달리 집단 중심적이라는 사실이다. 이수정 등(1996)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직자 부정부패의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각 개인의 사리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비해, 조직 부패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문화의 집합주의적 성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직규범에 대한 순응에의 압력’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문화특성이 작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집단 중심적인 특성은 공직 사회 뿐 아니라 사회 전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공동체 중심의 의식, 가족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는 가족주의 사고방식,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지역 연고주의 등 집단 중심적 특성은 공직자 범죄 뿐 아니라 사회 일반의 부정부패 현상에 대한 수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족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활동 분야에서 기초적 단위로 기능하며, 이는 가족이 개인에 우선하고, 사회의 중요 단위가 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집단을 각기 하나의 ‘집’, ‘가족’으로 보며, 여러 집단의 인간관계를 평가할 때 가족 집단의 인간관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우리나라 문화의 가부장적 특성은 사회에 까지 확대 적용되어 자기에게 소위 은혜를 베푼 상위자에 대하여는 마치 부모를 대하듯, 그가 어떠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의식하고 지지하는 경향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사회로 확대되면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 등의 1차적 집단(primary group)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타나 심리적 안도감

을 갖는 나머지 불법적인 행위도 눈감아 줄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역기능적인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확대된 형태의 가족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공사의 활동에 있어서 기초적 행동 단위가 되어 분파주의, 지역주의 및 귀속주의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전수일, 1996).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각 개인의 부패에 대한 용인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각 개인이 얼마나 조직에 순응적인지, 또는 가족중심적, 혹은 조직중심적인지에 따라 그들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패행위에 대한 용인도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개인의 내적 특성, 윤리의식과 조직중심적인 경향 외에도 개인의 인구학적인 특성들이 아마도 부패에 대한 용인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즉 소득이나 부양가족, 그리고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사회 부조리를 수용하는 정도를 결정할 것인바, 소득이 낮을수록 아마도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증가할 것이며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부정부패에 대해 더 부정적인 시각을 지닐 것이다. 그러나 이때 고려해야할 중요한 관점은 바로 이러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징들이 직접 각 개인의 부정 부패에 대한 용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이나 조직 중심적인 경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따라 각 개인의 주관적인 부패 용인도가 달라지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개인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의 윤리적 가치관의 혼란이 심해지며 연고주의로 대표되는 조직 중심적인 경향이 높아져서 부패에 대한 용인도가 높아지리라는 것이다.

현 연구에서의 또 하나의 가정은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용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공무원의 경우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수정 등(1996)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직자 부패의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공무원의 개인

적 사리사욕 보다는 조직범죄의 비율이 최근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고주의나 조직 중심주의 등이 공무원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경우 역시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한 용인도는 그들의 윤리의식보다는 그들 각각이 얼마나 조직 중심적인가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남녀 1,000명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기업 근무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 방법은 일반인의 경우 다단계 층화 추출법을 사용하였고 공직자의 경우 유의할당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은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가구 및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전문 조사기관이 대행하여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현 연구에서 알아보려고 계획했던 여러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척도들에서 연구목적에 적절한 문항들을 일부 선정하고 나머지 문항들은 연구자들의 합의 하에 새로이 작성되었다. 부조리 행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패에 대한 용인도가 측정되었다.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용인도: 부패에 대한 용인도는 김영중(1992)과 이수철(1991)이 제안하였던 부패 유형들 중 가장 대표적이라 여겨진 9가지 공무원 범죄를 토대로 작성한 문항을 제시하고 각 문항에 나타난 부패행위에 대하여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5점 척도상에서 표시하게 했

다. 부패에 대한 태도 문항에 포함되었던 공무원 범죄의 각 유형은 인사 비리, 공금 유용,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문서 위조, 수뢰, 기밀 누설, 횡령, 비리 묵인 등이었으며 이 각각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용인할 수밖에 없다' 1점부터 '절대로 용인 해주어서는 안된다' 5점으로 반응하면 되었다. 부패용인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점수들이 역산되어 사용되었는데, 전체 점수의 범위는 9점부터 45점까지로 구성된다. 이들 9개의 부패 수용도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79였다. 서로 다른 9개의 비리 유형에 대해 문항들이 작성되었기에 어떠한 하위구조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원점수들에 내재하는 요인 구조를 산출하였다(표 1).

두 개의 요인이 고유치 1을 넘었는데 첫 번째 요인이 전체 변산의 35.8%를, 두 번째 요인이 나머지 변산의 11.7%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요인들이 각 문항들을 설명해주는 h^2 도 모두 .2 이상으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에 높은 부하치를 보인 문항들의 내

용을 살펴보자면 대부분 공무원의 직위를 도구로 해서 저지르는 범죄들을 측정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두 번째 요인이 높은 부하치를 지니는 문항들은 직무와 직접 관련은 되지 않으나 연고주의나 비리 묵인 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 두가지의 요인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론적 변수들을 따로이 찾기 보다는 이들 모든 문항들을 하나의 척도로 취급하여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용인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 역시 .79였으며 문항들과 총점 간의 상관계수들의 평균도 약 .59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태도 문항들을 두 개의 하위척도로 나누기 보다는 하나의 총체적인 용인도 점수를 구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윤리적 가치관과 조직중심주의: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조직 중심적 경향에 대해서는 우선 '도덕적 혼란'을 측정하기 위해, 서봉연과 황상민(김도환, 1995)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윤리 도

표 1. 부패수용도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평균(표준편차)	요인 I	요인 II	communality
공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특정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허가해 준다	1.19 (.57)	.81		.67
행정계획에 대한 정보를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미리 누설하여,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1.27 (.66)	.72		.52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인출한 후 일부를 가로챈다	1.18 (.60)	.70		.53
직무관련 업체나 산하기관에 특혜를 제공하고 일정 대가를 받는다	1.37 (.79)	.64		.44
물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금을 개인적으로 쓴다	1.46 (.84)	.53		.44
동료나 상관의 비리를 가능한 덮어두려고 한다	2.26 (1.04)		.77	.59
연고관계, 인맥 또는 평소의 개인적 감정에 의하여 인사처리를 결정한다	2.30 (1.10)		.64	.42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관할 업체에서 식사나 차량 따위를 공짜로 이용한다	1.63 (.89)		.50	.43
자신이 담당한 행정업무를 늦장을 부리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1.83 (.92)		.48	.32
고유치		3.22	1.05	
설명량		35.8	11.7	

덕적 원칙의 혼란을 측정하는 문항들 중 현 상황에 적절했던 두 문항을 뽑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운이 좋아야 한다”였다. 또한 Klass (1978)와 Bandura(1986)가 비도덕적 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적이 있는 책임감 분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적합하도록 두 문항이 제작되었는데 그 중 한 예가 “윗사람이 지시한 일 때문에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였다. ‘규범의 부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Neal과 Groat(1974)의 척도와 Kohn과 Schooler(1983)의 척도 중 적절한 두 문항을 선택하였다. 이 중 한 예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기 힘들다”였다. 개인의 조직 중심주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족중심주의, 연고주의, 공동체주의 등이 측정되었다. 가족중심주의와 연고주의는 본 연구자들이 직접 제작한 문항들로 측정했는데 전자는 “가족을 위해서는 나는 희생을 감수하여야 한다”의 한 문항, 그리고 후자는 “직장이나 조직에서 승진 인사를 할 때 같은 조건이면 고향사람들을 선호한다”의 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공동체주의 또는 조직에 대한 동조경향은 서봉연과 황상민(김도환, 1995)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 중 일부가 선택되어 사용되었다. 그 중 한 문항은 “직장이나 소속된 집단에서 필요로 한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때로는 해야한다”였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인 변인들 외에 각 개인의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부양가족 수, 자녀의 유무, 수입, 사회경험에의 정도 등이 측정되었다.

현 연구는 대규모 설문 연구의 자료중 일부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관심 대상이 되는 변인들을 모두 지니고 있는 자료들만을 대상으로 최종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최종적인 분석 과정에 포함된 자료의 수는 공무원 420명, 일반인 611명이었다.

결 과

우선 부패 행위에 대한 용인도 상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은 용인도 수준상에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 = 8.561, p \leq .004$). 공무원들의 용인도 점수상의 평균은 14.03($SD = 3.88$)으로 일반인들의 용인도 점수의 평균인 14.82($SD = 4.55$)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가지 공무원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들보다 일반인들이 더 용인해줄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효과크기는 비교적 작은 수준($effect\ size = .19$)이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의 차이는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패 용인도와 다른 개인 내적 또는 인구학적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적인 분석에서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나누어서 결과들을 비교하여 보려고 한다.

회귀분석

공무원들의 부패 행위에 대한 용인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었던 여러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과 비공무원 각각에 대해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인구학적 변인으로서는 성별, 연령, 종교, 학력, 부양가족의 수, 월수입, 사회경험을 한 기간, 학령기 자녀의 유무 등이 포함되었고 이와 함께 개인의 내적 특성, 특히 윤리적인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한 도덕적인 혼란감, 책임감의 분산, 그리고 사회규범에 대한 혼돈의 정도가 포함되었다.

개인의 조직 중심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직에 얼마나 동조하는가하는 공동체주의의 정도와 가족주의적, 연고주의적 경향이 함께 포함되었다.

현재의 회귀분석은 공변량 구조분석의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예비적인 분석의 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변인들간의 위상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상대적으로 주요한 변수들만을 모형에 남기는 backward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무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인도상의 변산은 인구학적 변인들에 비해 개인 내적인 윤리적 가치관이나 연고주의 등에 의해 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연고주의일수록($\beta = .198, p \leq .001$), 도덕적으로 더 혼란을 경험할수록($\beta = .087, p \leq .10$), 그리고 책임전가의 경향이 높을수록($\beta = .081, p \leq .10$) 더 부패에 대한 용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인들과 부패에 대한 용인도 간의 중다상관계수는 .225였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_{3,415} = 7.532, p \leq .001$). 이에 비해 일반인들의 부패에 대한 용인도는 개인의 조직 중심적인 경향보다는 도덕적인 혼란감($\beta = .134, p \leq .01$)이나 부양가족의 수($\beta = .109, p \leq .05$), 교육수준($\beta = .139, p \leq .01$) 등의 개인의 인구학적인 특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과 용인도와의 중다상관계수는 .221이었으며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_{3,524} = 8.984, p \leq .001$).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한 용인도와 비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용인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각기 차별적인 모형이 설정되어도 됨을 보여준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개개인의 인구학적인 특성들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조직 중심적이나에 의해 부패행위를 용인해주는 데에 더 관용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변인들간의 유기적인 관계의 방향이나 관계가 피조사자들의 직업이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변량 구조 분석: 회귀분석 결과 부패 용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공무원과 일반인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들의 경우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함께 조직중심 경향과 관련된 변인들이 부패 용인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개인2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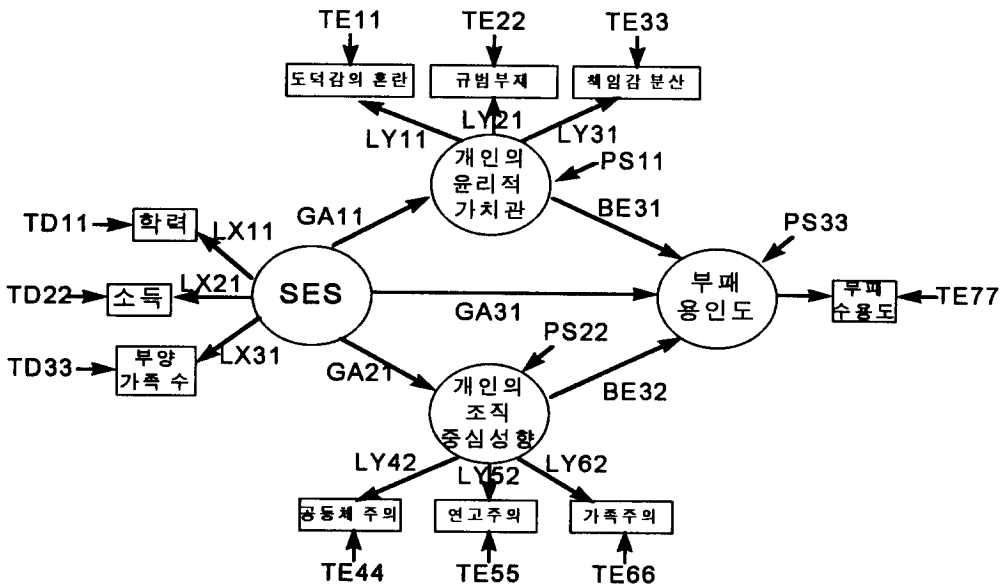


그림 1. 부패용인도 모형의 구조경로

용인도의 보다 중요한 예측변수였다는 것이다.

현 분석에서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부패 용인도에 관련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 이론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부패용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관계는 공무원과 일반인들간에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각각의 집단에 대해 공변량 구조분석을 따로이 실시하였다.

설정된 이론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즉,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 개인의 조직중심 경향이 부패용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개인의 조직중심 경향을 매개로 부패용인도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각 잠재변인들의 측정변수들은 회귀분석 결과와 변인들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선정하였다. 학력, 소득, 부양가족수 등을 측정변인으로하여 사회적 지위라는 잠재변인을 가정하였고, 도덕적 가치의 혼란, 규범부재, 책임감 분산의 측정변인들은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으로, 공동체 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는 조직중심 경향이라는 잠재변인으로 가정되었다. 이들 측정변인들간의 공변량 행렬표(부록 2, 3)를 구하여 이론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공변량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는 그림 1에서 제시한 모형의 경로계수들을 제시하였다. 이들 경로 계수 중 이론변수간의 관계성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표 3에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윤리적 가치관, 조직중심 경향과 부패 용인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3에 따르면 먼저 일반인의 경우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156, $t = 2.022$, $p < .05$)과 조직중심경향(.396, $t = 3.067$, $p < .01$) 부패용인도(-.058, $t = -2.434$, $p < .05$)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개인의

표 2.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일반인	공직자
측정 구조	LY11	1.000+	1.000+
	LY21	.637	1.147
	LY31	.739	.709
	LY42	1.000+	1.000+
	LY52	-1.059	2.887
	LY62	.386	3.522
	LY73	1.000+	1.000+
	LX11	1.000+	1.000+
	LX21	.409	-.275
이론 구조	LX31	.037	-2.530
	GA11	.156	.159
	GA21	.396	-.590
	GA31	-.058	-.007
	BE31	-.089	-.005
	BE32	.003	.206
	PH11	.717	.064
	PS11	.311	.198
	PS22	-.267	.070
잔 여 항	PS33	-.060	.045
	TE11	.984	.862
	TE22	1.374	1.119
	TE33	1.373	1.382
	TE44	1.950	1.569
	TE55	2.738	2.147
	TE66	3.313	2.489
	TE77	0.000++	0.000++
	TD11	1.265	1.599
	TD22	.587	.557
	TD33	.944	.477

+ 1.000으로 고정된 계수

++ 0.000로 고정된 계수

윤리적가치관은 부패용인도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089, $t = -2.161$, $p < .05$).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부패용인도로 가는 간접적인 경로(.014, $t = .797$, ns)와 조직중심경향에서 부패용인도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001, $t = -.028$, ns). 따라서 일반인의 경우 소득이나 학력 같은 인구사회적 요인이 높을수록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은 높아지고 부패에 대한 용인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반면에 공직자의 경우 인구사회적 변인에서

표 3. 부패용인도에 대한 이론구조에서의 예측효과(표준오차)

	일반인		공직자	
	직접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구사회적 변인→개인의 윤리적 가치관		.156(.077)*		.159(.222)
인구사회적 변인→조직중심 경향		.396(.129)**		-.589(.301)*
인구사회적 변인→부패용인도		-.058(.024)*		-.007(.086)
인구사회적 변인→부패용인도		.014(.017)		-.122(.067)
개인의 윤리적가치관 →부패용인도		-.089(.041)*		-.005(.041)
조직중심경향 →부패용인도		-.001(.039)		.206(.096)*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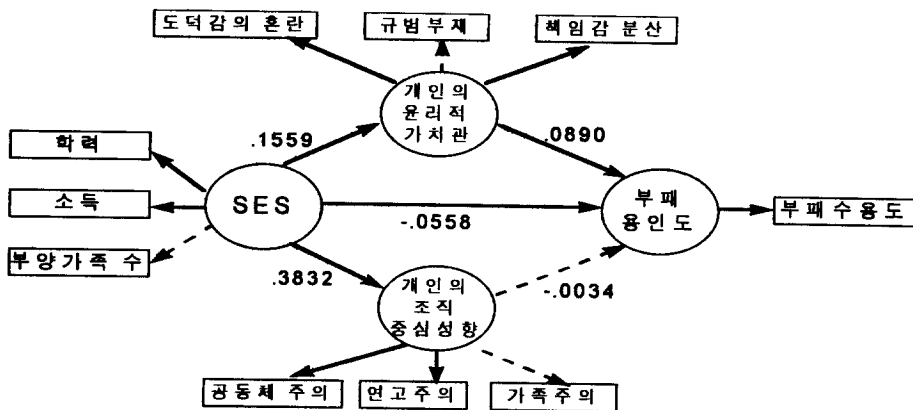


그림 2. 일반인의 부패용인도 모형에 대한 경로도형

조직중심 경향(-.589, $t = -1.967$, $p < .05$)에 이르는 직접경로는 유의미하였으나 인구사회적 변인에서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에 이르는 직접경로(.159, $t = .714$, ns)와 인구사회적 변인에서 부패용인도에 이르는 직접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조직중심경향에서 부패용인도에 이르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미하였지만(.206, $t = 2.153$, $p < .05$),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에서 부패용인도에 가는 직접경로(-.005, $t = -.128$, ns)와 인구사회적 변인에서 부패용인도로 가는 간접적인 경로(-.122, $t = -1.815$, ns)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공무원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개인의 조직중심 경향은 커지고 이것이 부패 용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이와 같은 모형의 구조경로 분석 결과는 회귀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우 부패수용도에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이 조직 중심경향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무원들은 개인의 윤리적 가치보다 조직중심경향이 부패 용인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3).

모델의 전반적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험자료가 부패용인도 모델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보여주는 전반적 지수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인의 경우 카이자승치는 $\chi^2_{(31)} = 108.39$ ($p < .001$)이었고 공직자의 경우는 $\chi^2_{(31)} = 108.39$ ($p > .001$)이었다. 원래 모델 검증에서 카이자승치가 유의미하지 않아야 모델의 부합도가 좋은 것으로 이 경우에 공직자의 경우에 모델의 부합도가 더 좋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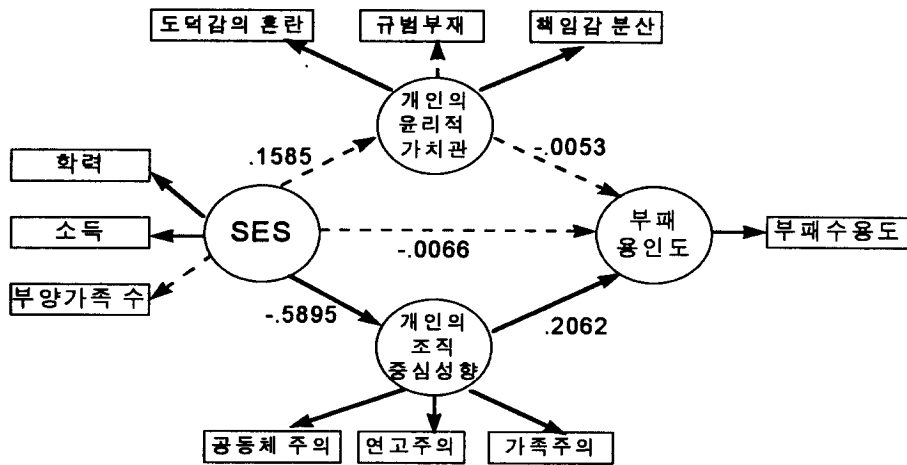


그림 3. 공무원의 부패용인도 모형에 대한 경로도형

표 4. 부패 용인도 모델에 대한 부합지수들

모 형	χ^2	df	확률치	기초부합치	조정부합치	원소간 차이
일반인	108.380	31	.000	.964	.937	.083
공직자	53.255	31	.007	.975	.955	.058

것으로 보이지만 카이자승치는 표본크기에 민감한 지수로 표본이 클수록 카이자승치가 커져 증가설을 기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이 경우에도 일반인의 사례수는 611명이고 공직자의 사례수는 420명으로 두 집단간에 나타난 카이자승치의 차이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례수에 민감한 카이자승치로 모델의 부합도를 판단하기 보다 다른 부합지수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표 3에 제시된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와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을 바람직한 모형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Bentler & Bonett, 1980). 본 연구결과 일반인과 공직자 집단에서 기초부합치는 각각 .964와 .975이고 조정부합치는 일반인 .937, 공직자 .955로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 지수인 원소간 평균 차이는 분석자료의 매트릭스와 재생산 매트릭스간에 원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로서 원소간 평균지

수 값이 .05보다 작으면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이순목, 1990) 본 분석에서는 일반인 .083, 공직자 .058로 일반인 집단이 약간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부정·부패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심리적 메카니즘을 밝힘으로써 나아가 부패의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 현 연구에서는 부패 행위에 대한 용인도를 최종적인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실제로 부조리 행위에 얼마나 가담했는가보다는 이 측정치를 사용한 이유는 공무원들을 포함한 피조사자들의 부조리 행동에의 실제 가담 정도를 현재와 같은 설문지 방식으로는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다. 또한 공무원들의 다양한 부조리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역시 사회적 바람

직성 때문에 피조사자들의 솔직한 태도를 유도해 내기가 어려울 것이기에 이보다는 공무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얼마나 용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정도를 물어보았다. 이전 연구들에서 발견된 공무원 부패의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허용할 수밖에 없는지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피조사자 개인이 부조리 행동에 대해 얼마나 저항적인지의 정도를 예측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허용도가 높을수록 본인 자신도 부패 행동들에 완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으며, 부패 행동에 대한 용인도가 매우 낮은 사람들의 경우 스스로가 이런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주어지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대로 공무원, 그리고 공직자들의 경우 이러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용인도는 일반인들보다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미있는 결과는 공무원들의 부패 용인도와 공직 비관련자들의 부패 용인도는 여러 심리적인 변인들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일반인들의 경우 개인 내적인 윤리적 가치관에 의해 공무원 부패에 대한 수용에의 정도가 달라지지만 공무원들의 경우 자신의 출신지역에 얼마나 집착하는가 등의 조직 중심적인 경향에 의해 용인도의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수정 등(1996)의 논문에서 지적되었듯이 최근 왜 공무원들의 조직 범죄의 빈도가 늘어나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냄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있는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패 행위를 눈감아주는 사회 분위기에 규범의 부재, 도덕적 가치의 혼란과 같은 개인적 특성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개인특성에 대한 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이 부패에 저항할 수 있는 태도를 강화하는데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우리 사회나 조직에 만연되어있는 지역주의, 조직에 대한 동조 경향이 그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에게 부패 방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나 조직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은 개인특성 변인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의 하부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두 문항에 불과해 척도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의 척도들을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척도의 문항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두 개씩 뽑아 만든 것으로 척도의 전 문항을 사용해서 측정한 것보다 그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자기보고형식의 질문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람들이 정직하게 응답하기 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부패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법은 그다지 타당한 측정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부패 연구의 결과들을 부패방지 프로그램 같은 곳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심층면접 등과 같은 다른 측정 방법들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해야하는 또 다른 점은 현재의 경로모형의 일반화가능도이다. 공변량구조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그림 3의 모형이 비교적 현재의 자료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회귀분석의 결과는 부패의 용인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현재 포함되었던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나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변수들 상의 비교적 적은 차이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할

때 이러한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도환(1994).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중(1992). 부패학-원인과 대책, 숭실대학교 출판부.
- 서봉연 · 황상민(1993). 서울대생의 심리사회 성숙성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 28(1), 1-31.
- 이수정 · 변지은 · 윤소연 · 이훈구 · 오경자(1996). 공직자 범죄의 유형분석과 잠재적 원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96 연차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599-609.
- 이수철(1991). 우리나라 공무원 부조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순목(1990). 공변량 구조 분석. 서울: 성원사.
- 전수일(1996).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ntler, P. M. & Bonett, D. G(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Dean, D(1961). Alienation: Its meaning and measur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753-758.
- Klass, E. T(1978). Psychological effects of immoral actions: The experimental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85, 756-771.
- Kohn, M. L. & Schooler, C(1983). *Work and personality: An inquiry into the impact of social stratification*. Norwood, NJ: Ablex.
- McClosky, H. & Schaar, T. H(1965). Psychological dimensions of anom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14-40.
- Neal, A. G. & Groat, H. T(1974). Social class correlates of stability and change in levels of alienation. *Sociological Quarterly*, 15, 548-558.

부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적 변인	구 분	빈도	퍼센트
직업	공무원	420	40.7
	일반인	611	59.3
성별	남	586	56.8
	여	445	43.2
연령	20대	295	28.6
	30대	365	35.4
	40대	201	19.5
	50대이상	170	16.5
학력	중졸이하	109	10.6
	고교중퇴, 졸업	415	50.8
	대학중퇴, 전문대졸	140	13.6
	대졸, 대학원이상	367	35.6
소득수준	100만원이하	218	21.1
	101만원 - 200만원	550	53.3
	201만원이상	263	25.5
사회경험	없음	81	7.9
	5년미만	241	23.4
	5 - 10년	261	25.3
	11 - 15년	140	13.6
	16 - 20년	116	11.3
	20년이상	192	18.6
결혼여부	미혼	364	24.3
	기혼	1136	75.7
취학 아동	있다	452	43.8
	없다	579	56.2
부양가족 수	없다	346	33.6
	1-2명	206	20.0
	3-4명	390	37.8
	5명이상	89	8.6
종교	기독교	233	22.6
	천주교	95	9.2
	불교	248	24.1
	천도교	1	.1
	원불교	3	.3
	없음	439	42.6
	기타	12	1.2

부록 2. 부패행동 가능성 모델에 대한 공변량 구조 분석에 사용된 공변량 행렬(일반인)

	도덕감 혼란	규범 부재	책임 전가	공동체 주의	가족 주의	연고 주의	부패 용인도	학력	소득	부양 가족수
도덕감 혼란	1.3696									
규범부재	.1902	1.5737								
책임전가	.2142	.2176	1.5864							
공동체주의	-.0204	.0243	.1074	1.8599						
가족주의	-.1413	.0057	-.0114	.1866	2.9889					
연고주의	.1770	.2390	.0492	.1107	.8712	3.9764				
부패용인도	.0376	.0291	-.0073	-.0423	.01111	.0552	.0686			
학력	.0466	.0093	.1247	.3136	-.3130	-.0147	-.0406	2.0020		
소득	.1130	-.0845	-.0128	.1178	-.0607	-.0171	-.0102	.2949	.7544	
부양가족	.0092	-.0386	-.0387	-.0666	.2832	.3030	.0290	.0149	.1112	1.0763

부록 3. 부패행동 가능성 모델에 대한 공변량 구조 분석에 사용된 공변량 행렬(공무원)

	도덕감 혼란	규범 부재	책임 전가	공동체 주의	가족 주의	연고 주의	부패 용인도	학력	소득	부양 가족수
도덕감 혼란	1.1251									
규범부재	.2074	1.4214								
책임전가	.1640	.1205	1.6047							
공동체주의	.0258	.1286	-.2305	1.7988						
가족주의	-.1316	.1621	.0079	.3162	2.9824					
연고주의	.1228	-.0097	.0738	.2236	.9393	3.7471				
부패용인도	-.0109	-.0006	.0216	-.0053	.0485	.0887	.0509			
학력	-.0915	.0372	-.2048	.0190	.0159	-.3373	-.0175	1.7948		
소득	.0749	-.0507	-.0141	.0835	-.0454	-.0159	-.0064	.0940	.6076	
부양가족	-.0005	-.0725	-.0738	.1639	.2659	.2794	.0163	-.1321	.0829	.9064

The Impact of Ethical Values and Group-Oriented Tendency on The Acquiescence to Corruptive Behaviors

**Jee-Eun Byun, Soojung Lee, So-Yeon Yoon, Geunyoung Kim,
Seungyoung Son¹ and Kyung-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¹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variables influencing on the acquiescence to corruption, and to figure out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A mean difference test shows that the acquiescence level of government employee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ther people. A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there exists a uniqu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value system and the level of acquiescence to corruption according to whether responders are employed by government or not. Generally the acquiescence level of government employees is influenced more by their group-oriented attitude rather than by ethical value system. A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also confirms this trend of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